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9.2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5	8	9	10	11	12
13	12	15	16	17	18	19
20	19	22	23	24	25	26
27	26	29	30			

원/달러 환율

1,370.40원 (+1.80원)

KOSPI

6,835.80 (+15.78 +0.23%)

KOSDAQ

821.25 (-13.04, -1.56%)

국고채 10년 금리

4.371 (+0.058%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증설의 시대, 후공정의 수혜도 함께 온다 [한유건, 권태우, 박찬솔, 김록호, 김민경]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그 많은 회사채는 누가 다 발행한 걸까? [김상만]

실전 퀀트 고금리 고착화, 핵심은 중기 실적 모멘텀 [이경수]

신흥국 전략 인도, 대외 불확실성에도 GDP 서프라이즈 [김근아]

기업분석

RFHIC 곧 2차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홍식]

SJG세종 P/E 2배 이하, 주가 재평가의 열쇠는 전동화 비중 확대 [송선재]

롯데렌탈 배당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안도현]

산업분석

통신 장비 2027년 화웨이의 대안은 한국 통신장비 업체입니다 [김홍식]

자동차 생산차질은 지나간 문제. 모델 사이클은 신차 출시로 개선될 것 [송선재]

건설 2027년 예산안 분석 [김승준, 하민호]

증권 낮아진 거래대금과 높아진 이익 체력 [고연수]

글로벌리서치

Hana 미국주식 Monthly 9월의 계절성 주의 필요하지만, 미국주식 선호 유지 [김재임, 강재규, 김시현]

프론티어인 VLCC 시장: 톤마일 증가와 환적 증가 [안도현]

단기투자유망종목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SK텔레콤, S-Oil, 대한항공, 이수페타시스, 농심,

코오롱인더, 실리콘투

하나증권



[사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미래산업 · 반도체 · 전기전자 Overweight

증설의 시대, 후공정의 수혜도 함께 온다

2026.9.2

미래산업 한유권, 권태우, 박찬술 반도체 김복호 전기전자 김민경

하나증권

2026년 9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rediVille

그 많은 회사채는 누가 다 발행한 걸까?

할 사람은 한다

올해 회사채 발행시장이 부진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전체 합산 발행/만기/순발행과 같은 통계를 뽑아보면 그 같은 통념(?)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상반기 내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은 줄이고 반대로 단기조달을 늘려왔다고 CrediVille을 비롯한 시장 참가자들이 주장해왔건만 결과는 체감상 지표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회사채 총 발행금액은 약 58조원을 기록했고 만기가 그만큼(58조원) 도래하면서 순발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행금액 58조원은 작년 같은 기간 65조원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절대 규모로 보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물론 이 같은 건조한 발행의 배경에는 증권사, 금융지주사와 같은 금융회사의 발행이 예년 대비 증가한 점이 일조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단기조달이 크게 증가한 것에 더해 장기조달 또한 과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사들을 제외하면 발행규모는 감소세가 좀 더 뚜렷해지기는 하지만 체감적인 괴리감은 여전히 크다. 총발행이 34조원으로 작년 46조원에 비해 줄었지만 절대규모로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순발행(상환) 기준으로 보면(금융사 제외) 과거 5개년 평균 순발행은 약 6.7조원으로 올해 순상환(9조원)과 비교하면 순발행이 과거 평균 대비 약 16조원 감소한 것은 맞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단기로 조달한 순조달은 9조원으로 회사채 발행 부족분만큼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 내지 시시점은 이렇다. 즉, 단기조달 증가 등과 같은 단기부동화 현상에 대해 그간 우려의 시각이 컸지만 실상은 회사채 발행실적이 그렇게 부진한 편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편,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경우 생각보다 발행실적이 부진한 편이었다. 총 17조원을 발행하는 가운데 만기도래가 27조원으로 10조원 순상환되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집행에 따른 대출 대체효과(회사채 발행 감소)도 크지 않았다. 현재까지 승인 실적만 놓고 보면 회사채 발행기업 중 네이버가 유일하게 초저리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구조와 관련해서 또 하나 특징적인 포인트는 사모사채 조달비중의 증가이다. 올해 7월 말까지 전체 채권발행액 58조 중 사모발행액은 6조원으로 전년 동기간 4조원에 비해 약 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행사들이 채권발행에 소극적인 가운데 수요예측 물량 확보부담 등을 우려해 사모발행으로 눈을 돌린 사례도 이전 대비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올해 회사채 발행시장은 외형적으로 생각만큼 부진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여건이 예년에 비해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지만 그 와중에 발행에 나선 많은 기업들이 있었고 그 결과 또한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발행여건이라는 환경보다는 발행주체들의 소극성에 따른 투자심리위축이 실제 상황을 보다 비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은 할 사람(발행할 기업)은 한다는 것이다.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고금리 고착화, 핵심은 중기 실적 모멘텀

실전 킷 | 2026.09.02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태석 taeseeklee@hanafn.com

꾸준한 실적 상향과 CAPEX 증가 미국 중목군, 고금리 상황에서 오히려 확신을 주는 이유

미국 스타일 분석을 통한 미국 자체 베팅 및 국내 증시 영향력 예측(SK하이닉스 ADR 이후 미국과 한국의 스타일 연관성 높아져)

- 고금리 지속 국면이나 금리 상승 모멘텀은 다소 완화. 7월 금리 급등(4.47% → 4.73%)으로 미국 저평가, 역가격모멘텀, 고배당 등 팩터가 급등했으나 8월 들어 진정세로 전환. 금리 델타 자체가 축소되면서 8월 저평가 계열 평균 수익률은 사실상 중립 수준에 머물렀음.
- 현 시점 관심을 가져야 할 스타일은 고금리가 안착하며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다소 진정된 국면에서 유리한 스타일, 즉 금리 델타 T+1(금리 델타 급증 다음달)과 상관성이 높은 팩터임. 이 기준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미국 중기(3개월) 실적 리비전 팩터와 CAPEX 증가 팩터임.
- 금리 T+1 상관에서 NP 3M 상향(+0.237)과 OP 3M 상향(+0.221)이 L-S 기준 1·2위를 차지, L-BM 기준으로는 CAPEX 증가가 +0.269로 5위로 최상위권 랭크.
- 특히 단기가 아닌 중기 리비전이 금리 T+1 상관성이 소폭 더 높았음.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실적의 꾸준함 및 안정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또한 중장기 성과 측면에서 중기 리비전 팩터의 우위가 관찰.
- 한편 지난 자료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CAPEX 관련 팩터는 계절적으로 불리한 구간. 회계연도 말 비용 정산과 연말 예산 소진 유인이 겹치며 9월부터 연말까지 부진한 경향.
- 그럼에도 현 시점 CAPEX 증가 팩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러한 계절성 및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CAPEX를 상향하는 기업은 그만큼 투자 회수에 대한 확신이 크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되기 때문. 조달 비용이 높은 국면에서의 투자 확대는 단순한 자본 배분이 아니라 경영진의 전망에 대한 강한 시그널이며, 실제로 지난 8월 CAPEX 증가 팩터는 +3.9%로 반등에 성공.
- 다만 CAPEX 절대 수준 팩터와는 구분이 필요. 고CAPEX(시총대비 절대 CAPEX) 팩터는 36개월 누적 -14.4%로 구조적 열위가 뚜렷한 반면, CAPEX 증가는 +6.3%로 성격이 다름. 투자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라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초점.
- 실적 상향폭(소팅 비중 66%)이 크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CAPEX 증가(33%)에도 적극적인 중목, 즉 두 조건의 교집합을 기준으로 소팅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반도체·하드웨어 - 마이크론, 엔비디아, AMD, 인텔, 샌디스크
- 소프트웨어·플랫폼 - 알파벳, 오라클, 아마존
- 정유·에너지 - 마라톤페트롤리엄, 발레로에너지, 필립스66, 프리포트맥모란
- 금융·소비 - 시티그룹, 찰스슈왈, 타겟, 델타항공, 포드
- AI 사이클에 따른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반도체·소프트웨어 그룹의 공통 배경이며, 정유·에너지 그룹은 정제 마진 개선과 설비 투자 재개가 맞물린 결과. 다만 에너지 섹터는 실적 상향의 상당 부분이 유가 요인에 기인하므로, 팩터 로직보다 원자재 사이클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한국 시장 관점에서도 미국의 실적 상향과 CAPEX 증가 조합이 유효하다면, 동일한 AI 밸류체인에 속한 국내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고금리 고착 국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2026년 9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 대외 불확실성에도 GDP 서프라이즈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도 견조한 성장 속 정부 투자 사이클 재확인. 그러나 증시는 선별적 접근 必

인도 FY2027년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YoY +7.8%를 기록해 RBI 전망치(7.0%)와 시장 컨센서스(7.1%)를 모두 상회했다. 정부지출을 제외한 주요 지출 항목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산업별로는 1차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이번 GDP에서 주목한 부분은 민간소비와 고정투자다.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인도 성장의 핵심 축인 내수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YoY +7.1% 증가하며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고정투자의 경우 인도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예산안에서 자본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9% 증액하고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제시한 만큼, 이러한 재정 확대가 실제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4분기 고정투자는 YoY +11.9% 증가해 13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 31.4%에서 34.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CAPEX 집행률 역시 27.8%로 FY2025년 16.3%, FY2026년 24.5%를 웃돌며 예년보다 빠른 집행 속도를 나타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고정투자 증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지출 확대에 상당 부분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안을 통해 제시한 투자 확대 기조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당분간 정부 주도의 투자 사이클은 인도 경제 성장의 주요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에는 민간 부문에서도 투자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1/4분기 전(全)산업 은행 대출잔액은 YoY +17.3% 증가했으며, 특히 데이터센터와 건설, 인프라 등 정부가 직접 투자를 확대하거나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늘었다. 대출 증가만으로 민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업의 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가 민간 부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는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자금 수요가 실제 설비투자과 프로젝트 확대로 연결될 경우 인도의 성장 기반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번 GDP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정부 주도의 투자 사이클이 유효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최근 인도 증시는 고유가와 높은 글로벌 금리 등 대외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도 강화되면서, 과거처럼 견조한 성장률과 중장기 잠재력만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향후 대외 여건이 안정될 경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증시의 반등 여력도 확대될 수 있으나, 그 전까지는 지수보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2026년 09월 02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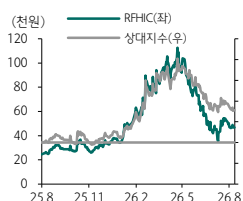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150,000원
현재주가(9.1) 45,0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21.25
52주 최고/최저(원)	112,500/24,950
시가총액(십억원)	1,195.8
시가총액비중(%)	0.27
발행주식수(천주)	26,575.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25.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8.4
외국인지분율(%)	22.22
주요주주 지분율(%)	
조석수 외 20 인	33.48
삼성자산운용	5.8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66.0	351.4
영업이익(십억원)	55.1	79.8
순이익(십억원)	56.5	71.3
EPS(원)	1,983	2,620
BPS(원)	14,567	16,434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14.9	185.8	260.0	318.0
영업이익	1.5	30.9	54.2	75.3
세전이익	25.0	37.8	64.3	83.0
순이익	25.7	28.7	40.4	54.4
EPS	969	1,082	1,521	2,047
증감율	48.62	11.66	40.57	34.58
PER	13.52	30.18	30.83	22.91
PBR	1.05	2.40	3.11	2.81
EV/EBITDA	24.94	21.13	18.88	13.66
ROE	8.60	8.84	11.00	13.02
BPS	12,453	13,625	15,070	16,719
DPS	100	400	400	400



Analyst 김용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RFHIC (218410)**곧 2차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매수 투자 의견/12개월 목표가 15만원 유지, 빨리 매수하는게 유리합니다**

RFHIC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15만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3분기엔 2분기보다도 더 우수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고, 2) 2027년도엔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피지컬 AI 육성을 위한 5G SA/6G 투자에 본격 나설 것이며, 3) 2027년 쇼티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재 PBR/PER이 매력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급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6~7월 수급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 상황이라 최근 상승 흐름에 동참하여 9월부터 적극 매수에 가담할 것을 추천한다. 2027년 4월 미국 어퍼 C 밴드 주파수 경매가 확정된 데 이어 국내 2026년 5G SA 도입이 예정된 상황이라고 보면 하루라도 빨리 매수에 임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우수한 실적 흐름 지속될 전망, 주파수 경매 이후 한 단계 이익 점프 업 예상

RFHIC는 2026년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자회사 RF머트리얼즈 실적 호전과 방산 부문 호조 영향이 컸다. 3분기에는 2분기보다도 더 우수한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 연결 매출액 690억원(+70% YoY, +34% QoQ), 연결 영업이익 153억원(+107% YoY, +37% QoQ)이 추정되는데 레이시온향 방산 매출 반영이 지연된 탓이 오히려 3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7년 실적 전망은 더욱 밝다. 미국 어퍼 C 밴드 주파수 경매에 이어 국내 5G 신규 투자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을 통한 미국 버라이즌 납품은 사실상 유력한 상황이며 국내에서도 5G SA 연말 도입을 언급한 상황이라 2027년도엔 신규 주파수 공급 및 5G 투자 재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신 부문 이익 기여도 증가에 힘입어 RFHIC는 2026년 연간 연결 영업이익 500억원 달성에 이어 2027년에는 700억원 기록이 기대된다.

2027년 쇼티지 발생 가능성 감안하면 현 주가 너무 낮다

통신 TR 시장은 2027년 쇼티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NXP가 통신 사업 부문을 철수한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장비/부품 규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신규 주파수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한국이 5G SA 도입에 가세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피지컬 AI 패권 경쟁 때문이다. 공급할 업체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수요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결국 2027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주가 측면에서는 상상 외로 높은 Multiple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 2012년 LTE 도입 사례, 2019년 5G 도입 사례, 최근 광통신 붐 사례로 보면 그렇다. 현 시점에서는 과거 공급 부족 상황에서 국내외 통신장비주 Multiple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판단이다.

Not Rated

목표주가(12M) N/A
현재주가(9.1) 7,03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35.80
52주 최고/최저(원)	11,850/5,400
시가총액(십억원)	190.2
시가총액비중(%)	0.00
발행주식수(천주)	27,052.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9.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6
외국인지분율(%)	7.25
주요주주 지분율(%)	
에스제이원 외 8 인	45.3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016	2,144
영업이익(십억원)	102	115
순이익(십억원)	94	100
EPS(원)	3,306	3,652
BPS(원)	20,693	24,138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858	1,792	1,817	1,897
영업이익	33	52	61	85
세전이익	21	34	52	86
순이익	2	4	34	69
EPS	62	145	1,213	2,471
증감율	흑전	133.9	736.6	103.7
PER	88.4	41.0	3.3	4.1
PBR	0.4	0.4	0.2	0.5
EV/EBITDA	3.8	2.2	1.8	2.7
ROE	0.4	1.0	7.4	13.2
BPS	14,726	15,080	16,660	19,037
DPS	100	150	150	2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2026년 9월 2일 | 기업분석

SJG세종 (033530)**P/E 2배 이하, 주가 재평가의 열쇠는 전동화 비중 확대****2Q26 Review: 영업이익률 6.5% 기록**

SJG세종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방진 장치인 컨버터/머플러(매출비중 94%)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현대차(매출비중 56%)/기아(23%) 등 현대차그룹향 매출비중이 88%이다.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9%/-9% 변동한 5,246억원/340억원(영업이익률 6.5%, -1.2%p (YoY))을 기록했다. 국내/유럽 매출액(매출비중 31%/9%)이 flat/-2% (YoY) 변동했지만, 북미/아시아 매출액(매출비중 45%/14%)이 현대차/기아의 북미 판매 호조와 전년 말 가동된 인도 공장의 가세에 힘입어 각각 30%/14% (YoY) 증가하며 기여했다. 연결 자회사인 SJG아센텍(전장화부품군)/SJG이브이(수소차부품군)의 매출액은 각각 358억원/136억원으로 3%/44% (YoY) 증가했다. 연결 영업이익률은 1.2%p (YoY), 1.0%p (QoQ) 하락한 6.5% 였는데, 전년 동기대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가율이 높아졌고, 브라질 진출에 따른 고정비 증가 등으로 판매관리비가 20% (YoY) 증가한 영향이다. 영업이익 감소에도 세전이익/지배주주순이익은 66%/34% (YoY) 증가한 440억원/338억원을 기록했는데, 영업외 외환 손익이 크게 개선(+154억원)된 영향이다. 2026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영업이익/지배주주순이익은 각각 10,094억원/703억원/720억원으로 마감되었다.

3가지 성장 전략: HEV용 배기시스템, 추가 해외 진출, 그리고 전동화/친환경차 부품

SJG세종의 주력 제품들은 내연기관차 축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SJG세종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HEV용 배기시스템과 추가 해외 진출, 그리고 전동화/친환경차 부품군 강화를 추진 중이다. HEV용 배기시스템은 단가가 내연기관차용 대비 20~30% 높아 믹스 효과로 ASP 상승에 기여한다. 현대차/기아의 상반기 글로벌 HEV/PHEV 판매는 14% (YoY) 증가했고, SJG세종의 HEV용 배기시스템 매출비중은 19%(+3%p (YoY), 현대차내)로 상승했다. SJG세종은 추가적인 해외 진출도 진행 중인데, 인도 공장은 전년 12월부터 가동 중이고(매출 목표 2026년/2030년 각각 116억원/461억원), 브라질 공장은 2028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한다. 전동화/친환경차 부품군은 자회사들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미국/유럽 공장에서는 EV 통합충전제어장치(ICCU)를 생산 중이고, SJG아센텍(지분율 98.1%)은 WSS(휠스피드센서)/SBW액추에이터를, SJG이브이(지분율 100%)는 수소센서/금속분리판/수소배기시스템 등을 생산한다. 상반기 기준 매출액/순이익이 SJG아센텍은 695억원/60억원(+6%/-5% (YoY)), SJG이브이는 252억원/5억원(+103%/흑전 (YoY))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자동차의 전동화/친환경차 전환에 힘입어 성장 중이지만, SJG세종의 연결 매출액 중 비중이 9%로 아직은 적어 실적/주가에 의미있는 비중(2030년 목표 30%)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다.

P/E 2배 이하의 Valuation은 저평가라는 판단

현 시가총액은 1,900억원으로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 P/E Multiple이 2배도 되지 않고, P/S는 0.2배, P/B는 0.3배에 불과하다. 특정 고객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저성장 산업 내 사이클로 인한 실적 변동성이 있으며, 내연기관차 축소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아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한다. 단, Valuation Multiple의 한계를 벗어나 재평가를 위해서는 전동화/친환경차 부품군 성장과 매출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26년 9월 2일 | 기업분석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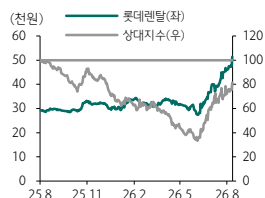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57,000원(상향)
현재주가(9.01) 51,4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35.80
52주 최고/최저(원)	51,400/27,300
시가총액(십억원)	1,866.3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36,309.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1.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5
외국인지분율(%)	6.41
주요주주 지분율(%)	
호텔롯데 외 6인	61.21
브이아이피자산운용	7.3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049.7	3,231.5
영업이익(십억원)	350.6	383.2
순이익(십억원)	134.9	169.4
EPS(원)	3,806	4,743
BPS(원)	45,978	50,148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792.4	2,918.8	3,039.1	3,146.9
영업이익	284.8	312.5	338.4	390.2
세전이익	133.4	167.0	174.2	226.9
순이익	106.8	127.6	131.5	171.3
EPS	2,917	3,514	3,623	4,719
증감율	(10.93)	20.47	3.10	30.25
PER	10.27	8.96	13.07	10.03
PBR	0.74	0.73	1.01	0.98
EV/EBITDA	3.85	4.17	4.17	4.04
ROE	7.50	8.39	8.06	9.91
BPS	40,683	43,125	46,748	48,467
DPS	1,200	1,200	3,000	3,00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롯데렌탈 (089860)**배당을 많이 할 것 같아요****공정위가 TPG의 롯데렌탈 인수를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TPG(미국계 사모펀드)의 롯데렌탈 인수를 승인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 호텔이 보유한 지분 61.2% 전량이 TPG에게 매각 될 예정이며, 매각 가격은 주당 59,000원 (공모가와 동일), 전체 매각 대금은 1.3조원에 달한다. TPG는 매각 대금을 모두 자기자본으로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TPG는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있었다.

롯데렌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부분은 주주환원 뿐

롯데렌탈의 대주주 변경 이후 다르게 생각할 부분은 주주환원뿐이다. 롯데렌탈의 렌터카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는 공고할 예정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과 현금흐름은 안정적일 예정이다. 렌터카 사업은 금리에 민감한데, 롯데렌탈은 가격 전가력이 높으며 회사채 등 부채 조달 수단이 다양하고, 연간 롤오버 되는 부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금리 시기에 도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다. 달라지는 부분은 주주환원의 레벨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EPS 전망치는 3,623원인데, 이 중 대부분을 배당에 사용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렌탈의 경우 영업자산인 차량 구매 시 부채(사채 발행/은행차입 등)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당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배당성향(당기순이익의 40% 이상 주주환원 목표) 대비 대폭 상향된 수준을 전망한다.

배당 기대감에 힘입어 목표주가가도 상향

롯데렌탈의 대주주 교체 이후의 배당 성향 상향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상향한다. 기존 Target Valuation 이던 P/E 10배를 높아진 배당수익률을 기대하며 13배로 상향하고, 이를 12MF EPS인 4,350원에 적용하여 목표주가를 57,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다. 또한 롯데렌탈은 단순히 렌터카 회사가 아닌 국내 최대의 차량 데이터(자율주행 학습용) 보유 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성장 전략과 배당 방향성에 대해서 재평가받을 시기라고 판단한다.

2026년 09월 02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9월 01일

쉴리드(050890)

BUY | TP 30,000원 | CP 8,860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218410)

BUY | TP 150,000원 | CP 45,000원

LIG아큐버(073490)

BUY | TP 80,000원 | CP 29,85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70,000원 | CP 14,620원

아이씨티케이(456010)

BUY | TP 60,000원 | CP 15,430원

우리넷(115440)

BUY | TP 25,000원 | CP 7,30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75,000원 | CP 34,95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22,50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10,450원

에치에프알(230240)

BUY | TP 50,000원 | CP 12,380원

세나테크놀로지(061090)

BUY | TP 80,000원 | CP 40,350원

통신 장비

2027년 화웨이의 대안은 한국 통신장비 업체입니다

미국/유럽 통신장비 업체 사실상 전멸, 중국산 장비 저가공세 때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필터, 안테나, 인빌딩 등 무선장비/부품 시장은 앤드류(미국), 알렌(미국), 파워웨이브(미국), 필트로닉(영국), LGP 올콘(스웨덴), REMEC(미국), 카트라인(독일), RFS(독일/프랑스) 등 서구권 업체가 주도했다. 하지만, 3G를 거치며 우한핑구, 콤바, 대북과기 등 중국 벤더사 위주로 빠르게 M/S가 재편됐다. 당시 중국 SI가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내수 장악을 시작으로 동남아, 중남미를 거쳐 선진국 통신사를 대상으로 고객군을 확대했고, 자연스럽게 중국 벤더사들도 동일 경로로 서구권 SI에 부품을 공급하게 된 탓이다. 서구 업체들은 앤드류와 파워웨이브 위주로 M&A를 전개했으나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패배한 끝에 사업부를 철수했거나 타국 업체에 흡수됐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글로벌 M/S 35%를 기록할만큼 유력 업체였던 필트로닉이 2016년 OEM 기지국 필터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입찰 경쟁”을 원인으로 기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선 자국 SI 덕에 내수 M/S가 확보되는 한국과 일본 벤더사 및 유럽 역내 소규모 업체를 제외하곤 주요 레퍼런스가 있는 비중국 벤더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국의 중국산 통신 장비 제재가 부품 벤더사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 제재는 2019년에 시작됐음에도 이후 CBR5와 로우 C 밴드 경매에선 국내 업체가 대규모 수주를 받지 못 한 것을 반례로 들며 국내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업체를 제외한 비중국계 벤더가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에릭슨/노키아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계 벤더사가 건재했던 까닭이다. 당시 중국산 규제가 SI가 아닌 부품단으로는 명시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탓이 크다. 실제로 우한핑구는 21~23년 수출액이 오히려 증가한 바 있다. 그런데 향후 미국 경매에서는 중국산 부품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화웨이와 ZTE를 금지한 이후 미국은 중국산 라우터, 통신실험장비에 이어 광모듈까지 수입 금지 범위를 확장 중이다. 주된 원인은 다가올 피지컬 AI 패권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중국 공급망을 해체하며, 기술/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필터/안테나/증폭기 등 통신 부품은 서버-단말로 이어지는 AI 트래픽의 주요 구성요소이고 해킹 우려도 있으니 당연히 현 기조대로면 중국산 부품은 사용되지 않을 공간이 크다.

중국 업체 퇴출시 국내 무선장비업체로 선택지 국한, 경매 수요 집중이 기대된다

결국 글로벌 SI의 선택권이 매우 축소된다. 통신장비 특성상 장기간의 통신사 레퍼런스가 필요하고, 그간 중국업체의 가격 압박이 심했던만큼 신규 경쟁사 진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 국내 무선장비업체의 비약적인 M/S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KMW를 비롯한 국내 무선장비 벤더사들은 글로벌 레퍼런스가 뚜렷하고, 세대별 매출 고점으로 놓고 봐도 과거 주요 벤더사들에 견줄 정도로 시장내 입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직은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산 부품 퇴출로 인한 공급망 쇼티지를 주가에 반영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정작 경매가 시작되면 작년 하반기~올해초 광모듈 관련주가 급등했던 것처럼 쇼티지로 인한 멀티플 급등이 예상된다. KMW, RFHIC, HFR 등 무선장비 주도주 위주로 매수 후 보유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2026년 8월)

생산차질은 지나간 문제. 모델 사이클은 신차 출시로 개선될 것 | 2026.9.2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Key Insight: 현대차의 신차 사이클은 하반기 개선될 전망

- 판매동향**
- 현대차/기아의 8월 글로벌 도매판매는 28.9만대/26.7만대로 -14%/+5% (YoY)
 - 합산 글로벌 도매판매는 55.5만대(-6% (YoY)). 내수/해외 판매가 각각 -27%/-2% (YoY)
 - 합산 도매판매는 지난달 +3%에서 -6%로 하락
- 달성률**
- 현대차/기아의 2026년 도매판매 목표는 1%/7% 증가한 415.8만대/335.0만대
 - 8월 누적 판매는 각각 257.5만대/219.6만대로 -6%/+4% (YoY). 계절성을 감안한 달성률은 각각 62%/66%
 - 이는 과거 3년 평균 달성률 65%/66% 대비 하회한 수준. 6년 평균 달성률 65%/66% 대비로도 하회
- 주가**
- 현대차/기아의 8월 글로벌 도매판매가 -14%/+5% (YoY)로 변동. 노조의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차질과 EV 신차 차이가 영향
 - 8월 누적 현대차/기아 판매는 257.5만대/219.6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6%/+4% (YoY) 변동
 - 산업적 요인(수요 둔화와 경쟁심화)과 기업적 요인(한국/인도 생산차질과 모델 사이클 둔화)이 복합적으로 영향
 - 산업적 요인, 특히 중국 EV와의 경쟁은 주요 시장에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기업적 요인 중 상반기 부품사 화재로 인한 생산차질과 3분기 부분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문제는 해결
 - 모델 사이클 둔화 문제도 하반기 신차 출시를 통해 개선될 것
 - 현대차는 향후 현대/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아반떼/투싼/투싼HEV/아이오닉3/산타페EREV/GV80HEV/GV90 등 다수의 신차 출시.
 - 기아는 기출시했던 EV2/EV3/EV4/EV5/PV5/텔루라이드HEV/셀토스/K4 등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셀토스HEV/쏘렌토 등도 가세할 예정
 - 실적 측면에서 보면, 부진했던 물량 효과는 다소 개선되는 반면, 최근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수출 채산성에 부정적 영향
 - 주가는 자동차 판매 둔화와 로봇 모멘텀 약화로 6~7월 급격한 조정. 8월 이후 박스권 등락 중
 - 현대차/기아의 12M F/P/E는 각각 9배대/6배대. 글로벌 동종업체 평균 8배 초반 대비 자동차 업체로서는 소폭 저평가로 평가
 - 주가 상승 모멘텀은 로봇/자율주행 부문의 강화에서 찾아야 할 것. 로봇에서는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출시, BD의 RMAC 확대, 생산법인 RA 설립과 지분구조 확정, 공급망 구축 등임. 자율주행에서는 SDV Pace Car 출시 등이 상승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현대차: 8월 도매판매 -14% (YoY). 내수/해외 -41%/-9%

- 도매판매**
- 8월 글로벌 도매판매 28.9만대(-14% (YoY))
 - 내수 3.4만대(-41% (YoY))/해외 25.4만대(-9% (YoY)). 해외판매 비중 88%(+5%p)
 - 내수에서 승용 1.1만대(-34%), RV 1.1만대(-49%), 소형 0.7만대(-28%), 대형 0.2만대(-30%), 제네시스 0.5만대(-42%, 비중 16%)
 - 내수 승용: 아반떼/쏘나타/아이오닉6/그랜저 -81%/-12%/+84%/+15% (YoY)
 - 내수 RV: 캐스퍼/코나 -18%/-66% (YoY). 투싼/싼타페/팔리세이드/아이오닉5 -86%/+9%/-65%/-17% (YoY)
 - 내수 제네시스: G80/GV70/GV80 -48%/-53%/-53% (YoY)
 - 내수 친환경차: 1.5만대(-30%). 친환경차 비중 42%(+6%p). EV/HEV 각각 0.5만대/1.0만대(-18%/-31%)
 - 내수 EV 전용 모델: 아이오닉9 770대(-17%), 아이오닉6 424대(+84%), 아이오닉5 1,372대(-17%), 넥쏘 276대

기아: 8월 도매판매 +5% (YoY). 내수/해외 -8%/+8%

- 도매판매**
- 8월 글로벌 도매판매 26.7만대(+5% (YoY))
 - 내수 4.0만대(-8% (YoY))/해외 22.6만대(+8% (YoY)). 해외판매 비중 85%(+2%p)
 - 내수에서 승용 1.0만대(-19%), RV 2.6만대(-6%), 상용 0.4만대(+23%)
 - 내수 승용: 모닝/레이 -32%/+7%. K5/K8 -41%/-2%
 - 내수 RV: 니로 -2%. 셀토스/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22%/-33%/-2%/-31%. 타스만 -57%
 - 내수 친환경차: 2.5만대(+24%). 친환경차 비중 62%(+16%p). EV/HEV 각각 1.1만대/1.4만대(+69%/+3%)
 - 내수 EV 전용 모델: EV3 3,174대(+37%), EV4 743대(-34%), EV5 3,146대, EV6 420대(-61%), EV9 312대(+179%), PV5 1,744대

2026년 9월 2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9월 1일

GS건설(006360)

BUY | TP 36,000원 | CP 33,300원

DL이앤씨 (375500)

BUY | TP 80,000원 | CP 71,500원

건설

2027년 예산안 분석

2027년 예산안: 820.9조원(+9.0%yoy)

2027년 예산안이 820.9조원으로 발표됐다. 2026년 추경 포함 총 재정지출은 753조원으로, 2027년은 전년대비 9.0% 증가했다. 예산안 발표와 함께 26~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발표했다. 2027년 820.9조원을 시작으로, 28년 894.6조원, 2029년 957.4조원, 2030년 1,005조원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채무는 2027년 7.6% 증가한 1,520조원으로 계획했으며, 28년 1,600조원(+5.3%yoy), 29년 1,659조원(+3.7%yoy), 30년 1,734조원(+4.5%yoy)로 전망했다.

건설 관련 예산: 국토부 예산안 69조원, SOC 28.7조원 + 메가프로젝트

2027년 국토부 예산은 69조원으로, 예산 24조원, 기금 45조원으로 구성됐다. 예산은 전년대비 2.4% 감소한 가운데, 기금은 17.8% 증가했다. 작년대비 6.2조원 증액된 규모로, 그 중 주택공급 관련한 예산이 8.8조원 증가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먼저 2027년 공적주택 21.8만호(공공임대 17.2만호, 공공분양 3.4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2만호)를 30조원을 투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역세권/중형 평수의 보편형 임대주택 3.6만호(건설형임대 2.6만호/4.8조원, 매입형임대 0.5만호/0.5조원, 전세임대 0.5만호/0.9조원)도 6.2조원을 투입하여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PF에 약 2,700억원을 지원하며, 해외건설투자 개발에도 1천억원을 투입하여 총 3조원의 해외 신전략편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SOC 투자로는 GTX A~C, 월곶판교, 남부내륙철도, 호남고속철도,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울릉도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이 있었다. 국토부 외에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예산에도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안이 있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5조원, 광주 군공항 이전에 0.3조원을 2027년에 투입한다. 이외에 데이터센터향 투자(GPU 매입 등 약 4조원), 전력망 구축(1.5조원), 용수 확보(3,900억원) 등도 있었다.

영향: 주택은 공공 중심, 비주택은 메가프로젝트 중심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보는 건설업의 2027년 주된 키워드는 공공주택과 메가프로젝트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전년대비 예산이 크게 증가했고, 기금의 대부분이 민간보다는 공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27년 주택시장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공공주택 발주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비주택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중심의 투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 투입으로 봤을 때, 광주 군공항 이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GPU를 확보하는 등 신규 증설을 위한 준비 또한 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공급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계룡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등)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센터는 가장 노출도가 높은 GS건설을, 광주군공항 이전은 금호건설을 추천한다.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mhoha@hanafn.com

2026년 09월 02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9월 01일

키움증권(039490)

BUY | TP 570,000원 | CP 282,000원

삼성증권(016360)

BUY | TP 175,000원 | CP 88,300원

NH투자증권(005940)

BUY | TP 44,000원 | CP 26,500원

한국금융지주(071050)

BUY | TP 330,000원 | CP 191,000원

증권

낮아진 거래대금과 높아진 이익 체력

8월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 49.6조원(MoM -25.2%)

8월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49.6조원(KRX 31.8조원, NXT 17.7조원)으로 전월대비 25% 감소했다. 3분기 누적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58.3조원(KRX 37.7조원, NXT 20.6조원)으로 2분기 90조원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8월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17.6조원으로 전월대비 47% 감소했다. 3분기 누적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25.6조원으로 2분기대비 9% 감소했다. 특히 한때 ETF 거래대금의 40%를 차지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비중이 5%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전체 거래대금 역시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8월 고객예탁금은 99.7조원(MoM -4.3%)으로 최근 4영업일 연속 100조원을 하회했다. 반면 신용공여잔고는 58.8조원(MoM +8.0%)으로 8월초대비 소폭 증가한 흐름이 나타났다.

8월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404억달러(MoM -20.2%)로 2025년 월평균 550억달러를 하회했다. 3분기 누적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910억달러로 2분기 1,802억달러 대비 부진한 상황이다. 다만 8월 해외주식 순매수대금은 19억달러로 3개월 연속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스페이스X, 알파벳, 아마존 등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타난 결과다.

8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84%(MoM +8bp),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31%(QoQ +5bp)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Q25 +37bp, 1Q26 +60bp, 2Q26 +15bp 상승한 데 비해, 3Q26 누적 상승폭은 아직 +14bp에 그친다.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상승 폭 자체는 과거대비 제한적인 만큼, 커버리지사의 채권평가손실은 시장 우려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

Top Pick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제시

거래대금 감소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증권업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다만 현재 주가는 이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대금 추정치 하단인 일평균 65조원(주식 50조원, ETF 15조원)을 가정하더라도 2025년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27조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은 한 층 높아진 이익체력을 기반으로 YoY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3분기 커버리지 5개사 합산 BK 수수료수익은 1.75조원(vs. 3Q25 8,850억원)으로 추정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실적 눈높이 조정은 불가피하나, 국내 증시 레벨이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2027년 커버리지사의 ROE는 평균 1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높아진 이익 체력이 입증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재차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 코스닥 M/S가 가장 높은 키움증권과 업계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율을 시현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을 Top Pick으로 제시한다.



Analyst 고연수 yeonsookoh@hanafn.com

2026년 9월 2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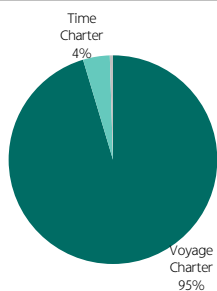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45.19 USD
CP(08.31) 43.78 USD

Key Data

국가	NORWAY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에너지
주요 영업	석유, 가스 & 소모 연료
홈페이지	www.frontline.bm
시가총액(십억USD)	9.7
시가총액(조원)	13.3
52주최고/최저()	45.29/20.31
주요주주 지분율(%)	
Hemen Holding Ltd	35.55
Folketrygdfondet	4.53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4.3 54.7 102.4
상대	(0.0) 44.3 73.6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050	1,965	2,513	1,644
영업이익	782	599	2,092	1,050
순이익	496	379	1,767	795
EPS(USD)	1.8	1.8	8.0	4.3
EPS(YOY, %)	(32.3)	(0.6)	351.4	(45.9)
ROE(%)	21.5	15.6	75.5	32.1
PER(배)	6.4	12.8	5.5	10.1
PBR(배)	1.3	1.9	3.4	3.5
배당률(%)	12.5	8.1	18.9	8.8

자료: Bloomberg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프론트라인 (FRO.US)

VLCC 시장: 톤마일 증가와 환적 증가

2분기 영업이익 409% (YoY) 증가

프론트라인의 2분기 매출액은 112% (YoY) 증가한 \$10.2억, 영업이익은 409% 증가한 \$6.7억(영업이익률 65.9%)을 기록했다. 2분기 평균 VLCC 운임이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했고, 영업 비용은 유사했기 때문에 이익 상승폭이 컸다. 중동 전쟁 이후 VLCC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며 운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3분기 체결된 VLCC 운임은 2분기 평균 대비로도 높으며, LR2 스팟 운임만 QoQ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프론트라인은 VLCC 8척을 매각하고, 신조선 9척을 인도받을 예정인데, 인도 완료 이후 VLCC 40척, 수에즈막스 19척, LR2 18척을 보유하게 되며 평균 선령은 6.6년으로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VLCC 시장 업데이트: 톤마일 증가와 환적 증가

프론트라인은 실적발표를 통해서 VLCC 시장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프론트라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수송량은 전쟁 이전 대비 80% 이상 감소했으며, 일당 450~550만 배럴 수준으로 짐작하고 있다. 최근 미국 걸프만에서의 아시아 수출량이 증가했고, 사우디 양부항에서 출발하는 대체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며 아시아 향 원유 수송의 톤마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푸자이라/싱가폴/말레이시아에서의 STS(Ship to Ship Transfer) 상황이 늘어나면서 원유 수송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VLCC의 운휴가 과거 대비 23% 증가했고, 오만만 인근의 대기 선박이 늘어나면서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대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VLCC의 오더북 비중은 33%로 높으나, 노후화된 VLCC가 시장에 과도하기 때문에 공급 증가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주환원도 기대 요인

프론트라인은 현재 수준의 운임이 이어진다면 주당 FCF는 \$10.4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론트라인은 부채를 유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주주환원에 보다 집중하는 선사이고, 분기배당을 시행 중에 있다. 2025년 배당성향은 99%에 달하고, 2026년 1분기 주당 배당금도 \$1.55로 높은 배당성향을 이어가고 있다. 당분간 VLCC 운임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며 현금 창출력이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8/31	1,653,000	1,693,000	2.42%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KS)	8/31	1,486,000	1,520,000	2.29%	- 록빌 공장 매출 반영과 교환율 효과로 연간 매출 성장 가이드선 상단 달성 가능성 높아 - PolyPeptide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며 중장기 생산능력·사업 영역 확대
삼성SDI (006400.KS)	8/31	571,000	569,000	-0.35%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SK텔레콤 (017670.KS)	8/31	98,600	94,600	-4.06%	- 국책 AI 사업자 선정·SK하이퍼 설립·AI RAN 구축 확대를 통해 AI 사업의 성과 예상 - 향후 AI 데이터센터 SPC 이익의 배당 유입에 따른 장기 DPS 성장 가능성도 긍정적
S-Oil (010950.KS)	8/31	149,200	151,700	1.68%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대한항공 (003490.KS)	8/31	28,700	28,750	0.17%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이수페타시스 (007660.KS)	8/31	112,800	111,100	-1.51%	- AI 가속기·스위치형 다중적층 MLB 수요 확대와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으로 호실적 기록 - HDI 대응력 확보 및 고객사 다변화가 향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농심 (004370.KS)	8/31	450,500	441,500	-2.00%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 593억원(YoY +47.6%) 기록 - 북미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코오롱인더 (120110.KS)	8/31	56,500	58,900	4.25%	- 석유수지 판가 상승과 아라미드 가동을 개선 등에 힘입어 호실적 기록 - 하반기 mPPO 김천 2공장 증설 효과와 CPI 필름 신규 모델향 Full 생산 기대
실리콘투 (257720.KQ)	8/31	53,300	51,900	-2.63%	- 미국·유럽 오프라인 리테일러 주문 확대에 힘입어 2Q26 호실적 기록 - 한국 화장품 산업 역사상 최대 수출 모멘텀의 최대 수혜 업체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05%	-0.64%p	+75.53%	+14.0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Oil (010950.KS)	8/31	149,200	151,700	1.68%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87,000	5.90%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NAVER (035420.KS)	8/18	228,000	215,000	-5.70%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058,000	-3.56%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에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69,000	23.97%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순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600	-7.28%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61,000	-0.57%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430,000	25.22%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종산 (103140.KS)	8/3	71,200	80,900	13.62%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1,200	-7.16%	•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492,000	33.33%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순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5.33%	+0.91%p	+41.89%	-19.6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950	-7.7%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9,320	33.0%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8,150	-1.5%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 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8,460	-20.4%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19,570	-4.6%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5,075	-4.8%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9,100	-10.3%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355	-6.3%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5.40	13.5%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5.38	-3.1%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 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87.41	-1.1%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 내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100.15	7.6%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56.63	70.7%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PAVE (미국 인프라)	2026.08.24	56.39	54.70	-3.0%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78.39	-2.3%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62.50	4.0%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30	8.31	9.1	9.2	9.3	9.4	9.5
	- 한국 7월 광공업생산 (3.6%, 이전치 6.0%) - 일본 7월 소매판매 (2.4%, 이전치 -3.9%) - 중국 8월 제조업 PMI (49.8, 이전치 49.2) - 중국 8월 서비스업 PMI (49.0, 이전치 49.0)	- 한국 8월 수출 (68.7%, 이전치 62.9%) - 한국 8월 수입 (22.5%, 이전치 26.5%) - 일본 8월 제조업 PMI (54.9, 이전치 55.1) - 한국 8월 제조업 PMI (52.3, 이전치 53.1) - 유로존 8월 제조업 PMI (E 52.8, 이전치 52.8) - 유로존 8월 CPI (E 3.3%, 이전치 2.9%) - 유로존 7월 실업률 (E 6.3%, 이전치 6.3%) - 미국 8월 ISM제조업지수 (E 55.2, 이전치 55.6)	- 한국 8월 CPI (E 3.2%, 이전치 2.8%) -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E 47k, 이전치 44k) - 미국 7월 내구재 주문 (E 1.1%, 이전치 1.1%)	- 일본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3) - 유로존 8월 서비스업 PMI (E 51.7, 이전치 51.7) - 유로존 7월 PPI (E 5.4%, 이전치 4.6%) - 미국 8월 ISM서비스업지수 (E 54.1, 이전치 55.6)	- 미국 8월 비농업고용지수 (E 55k, 이전치 -23k) - 미국 8월 실업률 (E 4.1%, 이전치 4.1%)	
9.6	9.7	9.8	9.9	9.10	9.11	9.12
	- 일본 7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116.5) - 독일 7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0.2%)	- 한국 2분기 GDP P (E --, 이전치 0.6%) - 일본 2분기 GDP F (E --, 이전치 1.1%) - 미국 8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E --, 이전치 99.8)	- 한국 8월 실업률 (E --, 이전치 2.8%) - 중국 8월 PPI (E --, 이전치 3.5%) - 중국 8월 CPI (E --, 이전치 0.5%)	- 유로존 9월 기준 금리 (E --, 이전치 2.4%) - 미국 8월 PPI (E --, 이전치 4.7%) - 미국 8월 기준주택매매 (E --, 이전치 -1.7%)	- 일본 8월 PPI (E --, 이전치 7.2%) - 미국 8월 CPI (E 3.4%, 이전치 3.4%) - 미국 8월 근원 CPI (E 2.4, 이전치 2.5%)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